

“Rivian (RIVN: NSQ)”

테슬라를 위협하는 차세대 전기차 기업

Summary

테슬라에 비견되는
전기차 기업
나스닥 상장
시총 95조원 기대

전기차 기업 Rivian(리비안)이 연말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에 비견되는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픽업트럭과 SUV에 강점을 가진 전기차 회사입니다. 최근 픽업트럭 R1T를 출고했고, 곧 SUV R1S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픽업트럭과 SUV의 인기가 높습니다. 신차 판매량의 20%가 픽업트럭이고, 50%가 SUV입니다. 리비안의 신모델은 사전예약 주문이 4만8천건 이상일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리비안은 9.5조원의 공모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2011년 이후 미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시가총액은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처: Forbes

History

공대 박사의
차세대 자동차에
너지 개발 노력

리비안은 2009년 RJ Scaringe(현 CEO)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Scaringe는 MIT Sloan Automotive Lab(자동차 기술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리비안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소의 취지를 계승했습니다. 픽업트럭은 승용차에 비해 무겁고 높은 출력을 요구했기에 전동화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Scaringe는 리비안을 통해 전기 픽업트럭을 선도적으로 개발했고 양산 제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유통과 물류 1위
아마존의 투자

MARKETS
Electric-Truck Maker Rivian Raises \$2.65 Billion Ahead of First Vehicle Launch
Startup backed by Amazon and Ford is valued at \$27.6 billion amid continuing tear for electric-vehicle companies
By Ben Foldy
Jan. 19, 2021 12:00 pm ET

Electric-vehicle startup Rivian Automotive LLC has raised another \$2.65 billion, bolstering its balance sheet as it looks for an edge in the nascent market for electric trucks.

Asset manager T. Rowe Price Associates Inc. led the round, which also included Fidelity Investments, Coatue Management and Amazon.com Inc., all of whom have already backed the auto maker, Rivian said Tuesday. The influx of capital for the Irvine, Calif.-based company came at a valuation of \$27.6 billion, according to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and adds to the \$5.35 billion that the company raised in five earlier funding rounds.

출처: Wall Street Journal

상장 직전 리비안의 누적 투자금은 12.5조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투자자 Amazon(아마존)은 2019년 8천억원을 투자했고, 2021년 이루어진 3조원 규모의 펀딩을 주도했습니다. 상장 후 아마존의 지분율은 1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금은 R&D와 일리노이 제조공장(15만대/yr)에 투입되었습니다. 공모자금 9.5조원으로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생산을 급격하게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Business

미래의 성장에 기대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흑자전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순손실 (1.2조원, 전년대비 +139% 증가)이 지속되었습니다. 차량 판매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투자금만으로 제조설비와 R&D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했기에 영업손실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의 R&D 비용은 9천억원, 2021년 상반기는 8천억원이었습니다. 신차 판매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2021년 예상 매출은 1.6조원입니다. 2022년에는 3.3조원으로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USD(백만)	2019	2020	1H20	1H21
R&D 투자 비용	301	766	292	683
영업이익(손실)	(409)	(1,021)	(381)	(990)
순이익(손실)	(426)	(1,018)	(377)	(994)

출처: Rivian 투자설명서

RCV 플랫폼 - 자체 운영체제 Fleet OS

RCV(Robotics and Computer Vision) 플랫폼이 주된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 배송 밴과 같은 물류·유통을 위한 전기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물류와 유통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해 제조업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RCV 플랫폼을 위한 자체 운영체제인 **Fleet OS**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Fleet OS에서는 배달용 전기차의 차량 분배, 충전 관리,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운전자 관리, 차량 수명 주기 관리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차량 리스, 보험, 운전자 안전, 원격 진단, 자체 충전 관리, 중고 차량 판매 등의 서비스들도 추가될 것입니다. Fleet OS는 구독 플랫폼으로 제공되어 꾸준한 수익 창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ey Insight

아마존과 협력 - 전자상거래와 물류 시장에 주목

리비안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물류시장을 성장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시장과 개별 mobility에 집중하는 테슬라와 차별화됩니다. 리비안은 **물류와 유통 관련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아마존에 2022년까지 만대, 2025년까지 10만대의 배달용 전기 밴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물류·유통과 직결된 Fleet OS가 밴에 설치될 것이며 OS는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밴과 관련된 데이터를 대거 수집하고 가공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별 모빌리티와 물류, 유통이 결합된 리비안만의 독특한 데이터베이스는 자율주행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한 층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처: Amazon Youtube 채널